

Digital & IT

커지는 전자책 시장

손안의 도서관 'e북시대' 주도 경쟁

애플·삼성 등 가격 낮추고 신제품 잇따라 출시

KT '쿡 북카페' 런칭 출사표... 소비자 관심 고조

이제 종이로 된 책이 아닌 전자기기로 책을 보는 시대가 왔다. 수천권의 책을 담을 수 있는 손바닥만한 기계를 들고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애플사가 손안의 PC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전자책에 대한 국내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갈수록 커져가는 전자책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국내 전자책 제작업체 등이 가격을 낮추고 신제품을 내놓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전자책 시대다.

◇ 전자책 붐물... 가격인하도 잇따라 = 전자책은 문자나 화상과 같은 정보를 전자 매체에 기록해 서적처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를 말한다. 특히 종이책 구입 비용에 절반 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 등 해외에선 이미 보편화 돼 있다. 최근엔 우리나라 국내업체에서도 대형서점과 연계를 통해 전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MP3로 유명한 아이리버는 교보문고와 제휴, 전자책 '스토리'를 내놓았다. 세계 3대 디자인사의 하나인 '2010 iF 디자인어워드'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받은 등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34만원대. 특히 삼성전자의 '파파루스(SNE-60/60K·35만원대)'도 교보문고와 제휴를 맺고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24일에는 인터파크가 강력한 해외 콘텐츠 유통 기반을 무기로 하는 '비스킷'(39만원대) 선보였다.

가격을 낮춘 중저가 전자책도 나왔다. 넥스트파파루스는 최근 '페이지원(PAGEone)'을 23만4000원에 내놨으며 네오릭스도 전자책 '누트(NUUT)'를 국내 최저가인 22만9000원에 판매 중이다.

◇ 아이패드 국내 출시 임박 = 아이패드와 아이폰 등 히트상품을 잇따라 내놓은 애플사는 최근 손안의 PC라 불리는 아이패드를 발표했다. 아이패드는 와이파이가(WI-FI)나 3g를 이용해 인터넷을 할 수 있

으며 9.7인치 LED 백라이트를 탑재한 LCD에 한번 충전으로 최대 10시간 동안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웹서핑과 동영상, 게임, 문서작성 등 기본적인 컴퓨터 기능도 가능한데 특히 전자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뛰어난 터치 방식을 적용한 아이패드는 흑백 전자잉크 기술을 써온 전자책과 달리 컬러 LCD 화면 기반이다. 전자책 분야에 먼저 진출한 아마존을 견제하기 위해 팅킨, 맥밀란 등 5개 해의 유명 출판사에서 서적 콘텐츠를 구입해 읽을 수 있는 전자책 서비스 '아이북(iBook)'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구매 적기는 = 전자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관련 기업들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KT는 '쿡(QOOK) 북카페'를 런칭하고 전자책(e-book)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쿡 북카페'는 기존 출판 콘텐츠에 KT의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디지털 유통 서비스로, 도서·만화·잡지 등 다양한 출판 콘텐츠를 PC는 물론 전자책 단말기와 스마트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IPTV 시스템 솔루션 업체인 주인네트와 사용자환경(UI) 개발업체인 액츠원, 전자책 콘텐츠 공급업체인 조은커뮤니티 등 3개사가 협약을 맺고 'U'북 서비스' 출시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을 부족 높이고 있는 각 사업체들의 경쟁적 사업진출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구매를 서두르기엔 이른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단말기가 모바일 기기의 대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터치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눈높이를 채우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또 전자잉크 방식은 눈의 피로감을 더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전히 화면 전환이 늦고, 전환 시 깜빡이는 결점이 눈에 거슬린다.

/*광명기자 kps@kwangju.co.kr



대우일렉 광주공장 가전 패러다임 바꾼다

인조가죽·우드시트 신소재 적용

양문형 냉장고 등 신제품 25종 출시



2010년형 대우 백색가전이 광주공장에서 대거 출시된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28일 서울 힐트호텔에서 '2010년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신제품 25종을 공개했다. 이 제품들은 모두 광주공장에서 생산된다.

대우일렉은 이날 업계 최초로 인조가죽·우드시트 등 신소재를 적용한 양문형 냉장고와 국내 최대 용량 17kg 강화 유리 도어 적용 세탁기, 1인 가정을 겨냥한 국내 최소형 14ℓ 전자레인지, 국내 최저 소비전력 냉장고 등 신소재, 공간절약형, 초집전 신제품들을 대거 선보였다.

인조가죽·우드시트 소재 양문형 냉장고는 주방과 거실 공간을 같은 느낌으로 꾸밀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전면 강화유리 도어를 채용한 일반형 세탁기는 4mm 두께의 대형 강화유리 채운 채 세탁물 확인이 쉽다고 밝혔다.

싱글족을 겨냥한 14ℓ 소형 전자레인지 3종 모델, 월 소비전력 31kwh급 세계 최저 소비전력 양문형 냉장고, 고온 스팀기능 적용 복합 전기오븐, 공기방울 코스 적용 17kg 대형 일반세탁기 등의 신제품을 공개했다.

대우일렉은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5월 말까지 신소재 적용 양문형 냉장고(모델명 FR-L78JRWS, FR-L78JRSG) 구매 고객에게 40만원 할인과 여행용 가방을, 15kg 공기방울 세탁기(모델명 DWF-150Q) 구매 고객에게

대우일렉트로닉스는 28일 서울 힐트호텔에서 2010년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다. 행사에 참가한 대우일렉 이성 사장과 광고모델이 신소재를 적용한 양문형 냉장고 등 신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15만원 할인과 일반세제(3kg)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성 대우일렉트로닉스 사장은 "이번 신제품은 주거의 고급화와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라며 "꾸준한 신제품 출시로 가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가정의 달 선물비용 작년보다 늘 듯

신용카드 연체율 1%대로 하락

가정의 달인 5월에 소비자들이 선물 구입에 쓰는 비용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라는 업계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CJ제일제당 통합브랜드사이트 CJ온마트가 최근 회원 1만3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정의 달 선물에 쓸 예상 비용으로 '10만~20만원'을 고른 응답자가 전체에서 46.3%를 차지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설문에서는 '1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올해에는 '10만원 이하'라는 답변이 30.2%로 줄었고 '20만~30만원'을 고른 응답자는 15.6%였으며 '30만원 이상'도 7.8%나 됐다.

선물은 '현금'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버이날 선물로 현금을 드리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9.9%를 차지했고 어린이날 역시 '장난감·완구류'(20.7%)보다 '현금'(21.4%)을 주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올해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고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개선됨에 따라 카드 연체율이 1%대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국내 6개 전업카드사의 연체율은 1.98%로 작년 말보다 0.25%포인트 하락했다. 카드사의 연체율이 1%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업카드사의 연체율은 2008년 9월 국제 금융위기가 불거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여 작년 3월 말 3.59%까지 올랐다가 작년 6월 말 3.10%, 9월 말 2.53%, 12월 말 2.23%로 꾸준히 하락했다.

카드사들이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연체채권 금액이 감소했다. 카드사의 연체채권 규모는 2008년 말 2조32억 원에서 작년 말 1조3915억 원으로 줄었다.

신양파크 호텔
7~9월 여름 워딩패키지
 스테이크 뷔페 ₩27,000~
 신양비즈니스카드 중점

Exercise with Mind & Body
 생활체육의 새로운 문화... (주)케이시얼레스가 알려드립니다.
 www.kis.or.kr

KLS